



임실경찰서, 옥정호 출렁다리 대테러 안전점검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임실군 운암면 소재에 위치한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아, 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의 보물 옥정호 임실 관광시대를 열어 봉어섬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420m 현수교 출렁다리를 개통하여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봉어섬 시설관계자와 합동으로 테러 취약요소 여부 시설물 관리를 면밀히 점검했다.

김효진 경찰서장은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할 것을 대비해 시설관계자에 대한 드론테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빈틈없는 안전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관광객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김제시 동대현 주무관, 임용 후 첫 월급 일부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난 10월 김제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대현(24) 주무관이 첫 월급 중 일부인 100만원을 지역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동대현 주무관은 2021년 8월부터 김제시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하여 2022년도 3차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9월 공직에 입문했다.

동대현 주무관은 공무원시험준비반의 심화반에 참여하면서 노량진의 전문 강사들의 직강프로그램과 김제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의 수험생 관리 시스템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장수소방서, 공동주택 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무주군에 위치한 미래드림 아파트에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 임무숙지 및 소방활동 계획 등 확인 △도로 폭 등 소방차량 진입 장애 요소 파악 △소방차량 부서 위치 선정 훈련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요령 교육 △인명대피 훈련 등이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양 지역 사회복지관 협력·친목 도모

### 전북도·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 결연 연찬회 남원서 열려

남원시는 제24회 전라북도·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 결연 연찬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사회복지관 관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양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관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진사회 복지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했다.

20일에는 우수프로그램 사례 발표 및 초청특강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21일에는 광한루 등 남원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방미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연찬회가 사회복지인들이 연계·협력하는 자리이자, 그동안 타인을 배려하고 쟁기느라 소홀히 한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24회 결연 연찬회를 축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남원시 감사실은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최초 시행한 지방규제 혁신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규제혁신 체계구축,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3개 분야 14개 진단지표로 평가해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규제혁신 우수도시 남원시'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향후 인증매체 및 재정인센티브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규제개혁은 주민생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시민·기업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22기 진안환경농업대학 수료식 개최

진안군(군수 전준성)은 지난 20일 제22기 진안환경농업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진안환경농업대학은 22년간 2,178명의 분야별 농업 전문가를 배출했다.

제22기는 청년농업CEO, 사과(중급) 과정인 2개 과정을 3월부터 10월까지 70시간의 이론 및 실습, 마케팅, 현장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전문농업인 45명을 배출해내는 성과를 이뤘다.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은 수료생 및 이수생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교육생 시상, 수료증 수여, 교육과정 되돌아보기 동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청년농업CEO 성학수씨를 비롯한 5명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리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정유하씨 등 2명이 공로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준성 군수는 "지난 8개월의 긴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 교육생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환경농업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진안 농업의 핵심리더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남원소방서, 환절기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가 환절기 심혈관질환 신고가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아침과 저녁의 쌀쌀한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관상동맥 내경이 줄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심정지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요령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은 3단계로, 1단계는 10초 이내로 환자의 어깨를 기볍게 두드려 의식확인과 호흡을 확인한다. 2단계는 119에 신고 후,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3단계는 환자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손꼽침을 올리고 나머지 손을 겹쳐 손가락을 끈 뒤 5~6cm, 분당 100~120회 속도로 기습을 압박하면 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급처치 술을 실행 할 수 있도록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송명호 회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회계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마스터하여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품질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매일

[www.jimaeil.com](http://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신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자지사 010-88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